

국내에서 가장 인기있는 리눅스책의 진가를 보다

이 책은 지난 8년동안 꾸준히 업그레이드되어 왔다는 사실을 나만 모르고 있었던 것 같다. 이 책이 8년동안 꾸준히 버전업되어 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. 이 책의 저자인 박성수님의 의지와 끈기에 나도 모르게 경건함이 느껴진다. 솔직히 나는 8년동안 꾸준히 버전되어 온 다른 책들은 아직 보지 못하였다. 그리고 필자는 그 기간동안 지속적으로 리눅스 실무를 해오면서 이 책을 계속 업그레이드 해라고 한다. 그의 엄청난 의지가 나를 놀라게 했지만 그는 의외로 소탈하고 담담했다. 또 하나 알게된 사실은 국내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본 리눅스책이라고 한다. 이 또한 이 책의 진가를 대변하는 것이라 하겠다. 내가 이 책의 추천사를 쓰겠다고 마음 먹게 된 것은 박성수님과 개인적인 인연때문만은 아니다. 그가 쓴 이 책을 누구에게라도 자신있게 권할 수 있다고 자신하기 때문이다. 이 책은 그만큼 리눅스 실무관리자들에게는 필수적인 책이며 8년동안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되었기 때문에 글자하나 버릴 것 없이 알찬내용으로 구성되어있기 때문이다. 특히 리눅스 백업시스템을 직접 구축하거나 아파치웹서버에 관한 설명은 가히 놀랄만하다. 내가 이 책을 읽고 가장 놀란 것은 이 책의 모든 내용들이 실제 리눅스시스템 관리방법대로 설명되어있기 때문이다.

한국리눅스유저그룹(LUG) 회장 김태용

국내 리눅스 보급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

국내에서 보급되고있는 많은 리눅스책을 보았으나 학생들이 실무경험을 하기에 이보다 더 나은 책은 보지 못하였다.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본인은 이 책이 국내 리눅스 활성화와 보급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리라 확신하게 되었다. 책의 모든 내용들이 직접 따라하면서 실습할 수 있도록 실제 실무내용들을 예로 들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. 실제 현장경험이 전혀없는 학생들에게 이 책은 실무경험을 대신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되어있다. 리눅스를 처음 접하는 초급자부터 체계적인 이론과 실무를 쌓고자하는 고급사용자까지 모든 리눅스인들에게 꼭 필요한 서적이라 생각한다. 아울러 이 책이 국내 리눅스보급에 기여할 수 있다는 확신을 한다.

동의대학교 컴퓨터과학과 박영식 교수 (공학박사)